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6년도 표어 ☉
교회, 백성의 위로자(사40:1)

☉ 행동지침 ☉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여호수아서 강해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 3:1 - 5:12)

이스라엘은 마침내 사막에서의 긴 여정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사막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나이도 80줄에 이르렀습니다. 전 생애를 바쳐 이 날만을 기다린 그들이었습니다. 5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약속으로 주셨고(창 15:18-21), 이 약속은 족장들에게 반복되었습니다. 이 벅찬 감격의 순간에 여호수아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고 했습니다(수 3:5).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이 시대는 ‘빨리 빨리’가 우리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정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 하신 일을 잊지 않도록 하시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 ① 기념비는 정복한 땅에 들어간 후손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후손들은 기념비를 보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신실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수 4:5-7).
- ②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과 교훈을 쉽게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수 4:6-7, 21-23).
- ③ 이 땅 위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증거 하므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기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24절).

3. 요단강을 건널 때 길갈에서 백성의 성례식이 있어야 한다

이스라엘은 할례와 유월절 행사를 다시 길갈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요단강을 건널 후 여리고 성을 함락

1. 언약의 법례가 있어야 한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정확히 홍해를 건너는 방법과 같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언약의 법례가 있을 뿐입니다. 법례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신 10:4),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아론의 지팡이(민 17:10, 히 9:4),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만나 향아리(출 16:33, 34)가 들어 있습니다.

3장에는 법례가 9번 언급되었습니다. 법례가 이토록 중요한 것은 백성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 ① 요단강을 건널 때 법례를 메고 간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 ② 법례를 메고 요단강을 건널 또 하나님의 중요성은 모세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도 인도하신다는 증거입니다.
- ③ 법례는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를 상징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 ④ 법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합니다. 법례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성결케 하며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심을 상징합니다.
- ⑤ 법례는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합니다.
- ⑥ 법례는 하나님의 자비의 상징입니다.

2.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들을 기념비로 세워야 한다

여호수아는 매 지파에서 한 사람씩 불러 요단 가운데 하나님의 궤 앞에 들어가서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널 후 그것으로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가나안에는 두 개의 기념비, 곧 요단 가운데서 돌을 취하여 길갈에 세운 돌비와 제사장들이 밟고 있던 곳에 열두 돌로 세운 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에 또 다른 열두 돌을 세웠다기보다 제사장들이 섰던 그 요단강의 열두 돌을 취해 세웠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개의 기념비는 하나의 기념비인 것입니다. 물론 기념비가 하나이든 둘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기념비는

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가나안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마음은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5:1). 인간적 생각으로는 기습 작전을 펴서 단칼에 멸망시킬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할례 의식과 유월절 의식을 행하도록 3일간 지연시키셨습니다.

전쟁을 앞둔 군인들이 할례 의식을 행한다는 것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에는 시몬과 레위의 누이 디나가 세겔 사람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건이 나옵니다. 세겔 사람들이 화친을 청하자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에게 할례 받을 것을 요구하고 그들이 신음하는 동안 진멸했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지경에서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야마적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침략을 감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것과는 다릅니다. 여호수아는 군사적 이득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더 중요시 했습니다. 할례는 언약의 상징입니다. 세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가 되듯 할례는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 들어가는 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성찬식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하나님의 언약, 구원 행동을 기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전반기 전도상 시상

18기 전도학교 수료 · 19기 전도학교 개강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시상 및 수료식

지난주일 순례자를 통해 발표된 2006년도 전반기 전도상 시상이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있다. 또한 지난 4월9일부터 12주간 실시된 18기 전도학교 수료식도 함께 거행된다.

이번 전도학교는 화요반이 신설되어 70인전도대 목요축호팀 기존대원들에 의한 전도현장실습을 통하여 매우 효과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전도학교를 이미 수료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고급반을 운영하여 전도학교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고급반을 수료하는 성도들은 향후 실시되는 전도

학교과정에서 전도실습을 담당하는 자격(지도자급)이 주어진다. 특히 서울교회 전도학교 최초로 예바다부 소속 농인 2명이 오늘 동시에 수료를 하게 된다.

현재까지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전도부 통계에 의하면 전도학교 수료자 수가 전국에서 우리교회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늘 오후2시 903호에서 제19기 전도학교가 개강되며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전도상 수상자들과 전도학교 수료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2006 전반기 전도상>

*상패 수상자(10명 이상 전도)

박이선 임명숙 김 옥 이현주 장정화 김은순 김동진 김미성 남현주 최성희 김혜중 이상은

*상장 수상자(5명 이상 전도)

서순희 유숙인 서희숙 윤현미 박 옥 이미송 김숙자 박길희 이창희 박영숙 최춘숙 김규희 김미향 서경하 박정임 곽미숙 박광일 이인숙 조성엽 최광성 정애신 정연택 김정희 은기장 손영호 김금준

<18기 전도학교 수료자>

주일반 : 경기현, 김경애, 김일순, 김정숙, 김호순, 박은영, 서명조, 윤태욱, 이승래, 정문길, 최봉희, 한광록(12명)

화요반 : 고금란, 김미경, 김민숙, 김소진, 노정숙, 박수옥, 신금전, 오정숙, 위현주, 윤현미, 이경화, 이귀숙, 이봉선, 이재순, 이해경, 정경자(16명)

고급반 : 김규희, 김옥, 김은순, 김혜중, 박길희, 박영숙, 박옥, 박이선, 박정임, 이미송, 이현주, 임명숙(12명)

오늘 사랑부 여름성경학교

오전 10시 102호실에서

‘하나님 나라는 참 좋아요’

우리교회 정신 및 신체 장애우 부서인 사랑부의 여름성경학교가 오늘 시작된다. 사랑부는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하나님 나라는 참 좋아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테마별 성경학교로 진행하게 된다.

사랑부는 수주일 전부터 사랑부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 성경학교를 열기위해 교사강습회와 기도회로 모이며 학생들이 성경학교에 참여하여 함께 은혜를

받도록 준비해 왔다.

비록 정신과 신체가 불편한 지체들이지만 누구보다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부 학생들이 이 여름에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 천국소망을 이뤄가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한다.

또한 사랑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디아스포라 영어교실 2학기 개강

7월 24일(월)부터 2학기 영어교실 진행

인권과 복음의 시각지대인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에 귀순하여 정착단계에 있는 탈북 청소년들의 중·고·대학 과정의 원만한 이수과 신앙 및 사회정착 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내외 우수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진과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가르치는 디아스포라 영어교실을 지난 5월 1일에 개강하여 7월 7일까지 1학기 과정을 마쳤다.

그동안 1학기 영어교실에는 강남구 일원동과 송파구 거여동에서 살고 있는 탈북청소년들이 참가하

여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오영숙 권사(영어교실 학감)를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으로 영어의 기초를 쌓았다.

디아스포라 영어교실은 계속하여 탈북청소년들을 위해 오는 7월 24일(월)부터 2학기 영어교실을 진행할 예정이다. 2학기에도 많은 탈북청소년들이 서울교회 디아스포라 영어교실에 참가하여 신앙의 성장과 함께 원만히 우리사회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지식들을 쌓을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봉사를 부탁드립니다.

한국 장로교 농아선교 60주년 기념 선교대회 열려

7월23일 청양 송의청소년 수련원에서

26일(수)이종윤 목사 특강

한국 장로교회에서 농아인을 대상으로 선교를 시작한 지 올해로 60년이 되었다. 이를 기념하여 총회 농아인 선교회는 오는 7월23일(주일)-26일(수)까지 충남 청양에 위치한 송의 청소년 수련원에서 ‘한국 장로교 농아선교 60주년 기념 선교대회’를 연다.

우리교회 이종윤 목사는 본 대회 기간 중 26일(수)에 주기도·사도신경을 농아인들에게 쉽게 풀어서 강의하게 된다.

성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7월성경통독자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7월중 성경을 통독한 성도들을 시상하는 시간을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갖는다. 교회는 성경을 통독한 성도들에게 기념으로 머그컵을 드리고 있다.

7월중 성경을 통독한 이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 <4독> 유율상 집사(6교구)
- <3독> 이윤영 권사(5교구)
- <2독> 이영희 권사(6교구) 김종자 권사(14교구) 유기찬 집사(14교구)
- <1독> 장낙희 권사(5교구) 김희진 권사 양지훈 집사(6교구) 김광신 장로(12교구) 안경옥 집사 조미진 성도 주영도 집사 한차남 집사(13교구) 정명숙 집사(14교구)

금주의 성구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요한계시록 19:11-13)

I saw heaven standing open and there before me was a white horse, whose rider is called Faithful and True. With justice he judges and makes war. His eyes are like blazing fire, and on his head are many crowns. He has a name written on him that no one knows but he himself. He is dressed in a robe dipped in blood, and his name is the Word of God.

(Revelation 19:11-13 [NIV])

유아부 여름성경학교에 초대합니다

아기의 엄마들을 초대합니다!

박금실 전도사(유아부 지도)



“아- 무더운 여름이 왔다, 기다리던 여름성경학교!” 유아부 여름성경학교가 ‘경건하게 자라나오’를 주제로 7월24일(월)부터 25일(화)까지 오전 10시- 오후2시 30분에 열립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아이에게는 재미있는 성경 학습과 영어 챗트, 인형극 관람, 만들기와 게임 활동, 엄마들에게는 엄마가 해주는 아기를 위한 마사지, MBT검사 등 정성을 모아 40여분의 교사들이 교육과 전도와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을 모방합니다. 그리고 어려서 형성된 습관은 일생을 통해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무엇보다 교회를 통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기쁨으로 예배할 때 포래의 친구들과 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성을 배우며, 곡조가 있는 찬송과 율동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며, 부모님과 선생님의 사랑의 돌봄을 통해 경험한 사랑에 반응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적으로 부모님의 도움과 세심한 배려를 필요로 합니다.

성경학교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25일(화)에 있을 [유아부 자모회]에는 주위에 가까운 이웃과 함께 오시어 전도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삼람!**

58주년 제헌절 기념-제헌국회 이운영 의원 기도문

이 나라는 기도로 세워졌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지요,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옵니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돌보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만방에 정시(明示)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이 길면 길수록 이 땅엔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독립과 함께 남북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태학을 입어 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智)와 인(仁)과 용(勇)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이 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 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로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58주년 제헌절 기념 조찬기도회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58주년 제헌절기념 조찬기도회

12월(수) 오전 7시30분 ○장소: 국회도서관강당 ○주최: 국회조찬기도회, 헌정기도회, 시새마을운동본부



지난 12일(수) 아침 국회의사당에서 제58주년 제헌절 기념 조찬기도회가 열렸다.

우리나라는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가 열릴 때 임시 의장인 이승만 박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자고 했고 이에 감리교회 목사인 이운영 의원이 기도함으로 시작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제헌절 기념 국가조찬기도회는 국가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기도회가 아닐 수 없다.

이날 조찬기도회는 국회조찬기도회, 헌정기도회, (사)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주최하였고 이종운 목사님께서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셨다.

예레미야 4:1-4, 잠언 14:34절의 말씀으로 설교하신 이 목사님은 “이스라엘은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칠 칠절을 국가 3대 명절로 지킨다. 그들이 받은 율법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율법을 어기고 진리가 아

닌 것을 섬기는 것을 가증히 여기셨다. 이 세대에서는 정의를 볼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마땅히 분노해야 할 것에 분노치 않는 가증함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세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세운 나라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나라에 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아름다운 기후와 근면한 백성과 그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재능과 재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말씀하셨다.

북한의 핵 문제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 나라의 법을 잘 지키며 가증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를 기도한다.

허숙 (편집부)



만민에게 전도 - 카자흐스탄 단기선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주세요

박고은(대학부)

1. 우리가 밭을 땅을 향해 계속해서 기대함을 갖도록
2.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해 일하시는 것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고 올수 있도록
3. 사랑의 마음으로 카작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올수 있도록
4.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하신 비전을 발견하고 올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송한솔(대학부)

1. 단기선교기간동안 건강지켜주시기를
2. 단기선교팀 모두가 하나 되어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3.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수 있도록

김미래(대학부)

1. 단기선교를 통해 세상을 품을수 있는 비전을 주시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을 깨닫도록
2. 주님의 일과 팀에 대한 헌신과 순종을 위해
3. 단기선교팀이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되도록
3.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수 있도록



이인영(대학부)

1. 주님께서 저희를 이끌어주시고 원하시는 뜻을 이뤄주세요.
2. 우리의 마음이 우선 준비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3.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영적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4.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마음 문을 열고 함께 예배드리고 기쁜 찬양 올려드릴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5.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주관하셔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이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박수진(대학부)

1. 준비하는 기간 동안 단기선교팀이 하나가 될수 있도록
2. 출발하는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건강 체력 유지할수 있도록
3. 하나님께서 지으신 카작인들과 카자흐스탄을 마음에 품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질수 있도록
4. 더욱더 큰 비전과 뜨거운 신앙, 하나님의 마음을 품도록

김다희(대학부)

1. 단기선교팀이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도착하여 사역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수 있도록
2. 현지에서 만나게 될 카작인들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수 있도록
3.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계획하신 일들과 비전을 찾아 하나님께 영광돌리도록

오주명(대학부)

1. 주님 뜻에 순종할수 있도록
2. 영육의 건강을 위해서(팀원, 가족)
3. 현지에 주님의 복음이 뿌리 내릴수 있도록
4. 매 순간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느낄수 있도록

김성주(대학부)

1. 카자흐스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동일한 마음으로 그 땅과 그 땅의 영혼들을 바라볼수있기를
2. 매 순간 순간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있기를
3. 찬양을 인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할수있기를

주일예배 복장에 관하여

요즘 날씨가 상당히 무더워지고 또한 장마철이 되어 습도가 높습니다. 그래서인지 주일에도 반바지 차림에 맨발로 샌들을 신고 교회에 오는 학생들이 많이 눈에 띄고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오는 젊은 성도들도 보입니다. 날씨가 덥고 습도가 높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나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예배 참석 시에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울러, 찬양대원들도 단정한 복장 위에 가운을 착용해주시고, 지나친 노출의상과 소음을 일으키는 슬리퍼 착용을 좀 삼가해 주면 어떨까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편집부-

교구위원회 간사 위로회

교구위원회(위원장 임상현 장로)는 7월17일(월) 충주호 부근에서 상반기 동안 수고한 교구 간사를 위로하는 시간을 갖는다.

금주의 여름수련회

16일(주일) : 사랑부
19일(수)~ 22일(토) : 대학부

동정

- 기증: 김사무엘 장로(11교구) 서울교회 도서실에 책 200여권 기증
- 주간 식당 봉사: 한나전도회(7월 16일) 당회원(7월23일)
- 금주의 식사 제공: 윤요셉·안재희 성도 가정 (결혼을 감사하며)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여름성경학교·수련회가 은혜 충만한 성회 되도록
2. 피택 집사·권사들 은혜 중 교육과정 잘 마치도록
3. 호산나 복지법인과 사랑의 집터를 위하여
4. 새로 번역된 주기도·사도신경 한국교회가 사용토록
5. 북한의 신앙 자유와 복음화된 통일조국 위하여

■ 교외오시는 길

